



2009
Arko Arts Theater
partner



트러스트무용단
데칼로그 DEKALOG —
살인하지 말라

2009년 7월 1일(수)~5(일) 수, 목, 금요일 오후 8:00 토, 일요일 오후 7:30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이선영, 정정화, 지현준, 서선영, 오민정, 정성태, 이지나, 서진욱, 구선진, 김홍부, 이현도, 김윤규 연주 연리목, 음브레, 정재호, 정현진

음악감독 Yohm Project(연리목, 음브레) 무대디자인 김한신 무대제작 스테이지, 세원무대

조명디자인 김철희 조명오퍼레이터 탁형선 조명크루 김재익, 신상훈, 김재원 의상디자인 이진희

의상어시스트 강수아, 김성민 음향디자인 도명호 영상제작 영상작업공간 틀어(황경환)

사진촬영 최병재, 김군, 이동현 그래픽디자인 연장통 기술감독 김미연 무대감독 구봉관 조감독 변용

진행 박은정, 김금광, 구인주 홍보 (주)공감엔피엠 기획 이효숙

아르코예술극장 STAFF

극장장 최용훈 책임전문위원 장정진 프로듀서 조형준 티켓시스템·홈페이지운영 강수정

홍보지·온라인 소식지 발행 황금실 하우스매니저 권진희 무대기술감독 최형오

무대 천원욱, 김예곤, 이동선, 도성종 조명 이인연, 신호, 진용남 음향 도명호, 김동수, 홍승욱

인턴

공연기획 신지영, 김수연 하우스매니저 김민영 조명 고은비, 신경윤 무대 강노을 음향 조연희, 주명선

주최 아르코예술극장, 트러스트무용단

주관 TDC기획

후원 서울문화재단, TDC후원회



SARANG
TICKET
사랑티켓

“2009 Arko Partner”인 트러스트무용단의 <데칼로그> 공연이 그 막을 엽니다

트러스트무용단은 ‘춤’이라는 행위의 경계와 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무용단입니다. 그들의 춤은 극장 공간에서도 열린 공공의 공간에서도 심지어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도 트러스트 특유의 빛을 발합니다. 그런 그들의 춤에는 또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대를 숨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들이 몸으로 빚어내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곤 합니다.

트러스트무용단은 매우 탄탄한 팀워크를 가졌습니다. 안무자와 연출자의 호흡도 뛰어납니다. 그 팀워크 호흡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를 채워줄 <데칼로그> 공연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공연이 또 얼마나 진화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르코예술극장 극장장, 최용훈



생명은 모이고 흩어지며 관계 짓고 끊으며 이루어지고, 자유를 위한 생명은 고귀하다. 관계는 마치 호흡과 같아 삶의 인과를 남기고, 생명을 위한 자유는 무익하다. 단절은 숨 없음과 같이 태초로 돌아가 새로운 잉태로 이어지니, 회복될 것이 있음이라

그리스어인 “데칼로그(DEKALOG)”는 열 가지 말씀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십계명은 대략 기원전 13세기 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신에게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한 이야기다.

생명은 각각 개체들의 관계가 모이거나 흩어짐으로 혹은 관계를 짓거나 끊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관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삶의 인과를 남긴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은 숨을 끊음으로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허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살인은 단순히 숨의 끊음만이 아닌 존재적 살인까지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살인은 우리들이 다양하게 맺어온 서로의 관계를 끊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 새로운 잉태로 이어져 관계를 회복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오래전 인류에게 전한 십계명의 오늘날 의미는 그 계율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 함이니, 이른바 생명 안에 자유가 있음이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인하지 않음이 곧 우리를 생명 안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통해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고대로부터 인간의 살인행위는 이어져 왔다. 이 살인은 신에 관하여 ‘승인받은 살인’과 ‘승인받지 못한 살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인간이 내세우는 승인된 살인은 자유를 얻기 위한 살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살인들은 종교적, 개인적,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신이 준 부정적 살인의 의미는 바로 위의 ‘승인받지 못한 의도적 살인’에 가깝다. 십계의 참의미는 계율을 통한 인간의 자유함과 관련된다. 자유의 전제는 생명이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음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버렸다. 인류의 최초의 죽음은? 카인이 동생을 죽이기 이전인 아담과 이브가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얻으려 한 것에서부터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을 떠날 때 이미 존재론적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성서에서 인간이 신과 단절됨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하게 맺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존재론적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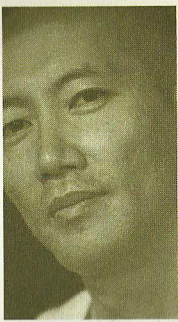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신의 계명 속에 감춰진 본질적 의미이다. 존재론적 살인은 신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 등 모든 관계에서의 단절을 의미한다. 때론 많은 이들이 신의 정의를 내세우며 생명 밖의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자유는 생명 그 안에만 존재한다. 십계명의 중심에 세운 “살인금지”의 본질적 의미는 육체의 의미를 넘어 영혼의 문제에 까지 닿아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 낙원에서 팔아버린 생명과 같다. 그것은 신, 사회, 자연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 버렸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승인받지 못한 폭력’, 즉 “존재론적 살인”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유를 위해 나의 존재를 죽이지 않는가? 나의 자유를 위해 나 이외의 존재를 죽이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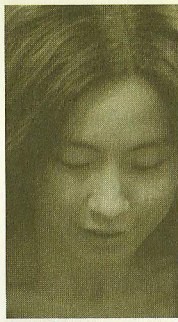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오늘날의 살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의 자유 혹은 집단의 자유를 위해 벌어지는 관계의 끊음은 어떻게 볼 것인가? 호흡이 끊어지듯 소통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잉태하는 자유가 태초 생명으로의 회복을 막아서는 오늘, 오래전 신이 “살인하지 말라!” 돌에 새겨 전해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이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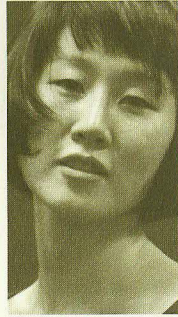
정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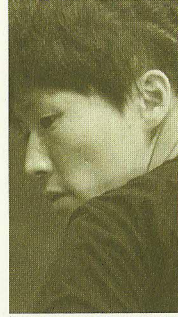
지현준



서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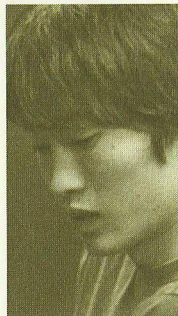
오민정



정성태



이지나



서진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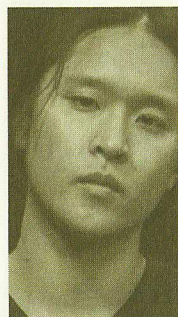
구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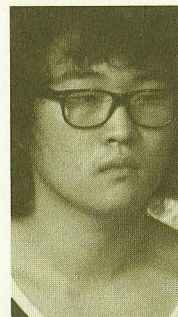
김홍부



작곡, 연주 연리목



작곡, 연주 움브레



연주 정재호



연주 정현진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첫 번째, 데칼로그 I DEKALOG I _ 살인하지 말라

2002년 초연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우수레파토리로 선정 2년에 걸쳐 지역순회공연을 하였다. 다양한 내력을 소유한 출연진과 그들의 진실된 몸짓은 화려한 수사보다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삶의 진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트러스트의 춤정신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현재적 의미와 매세지가 트러스트 특유의 강함과 서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정경화, 제니정자라, 최진한, 김정용, 최종천, 김진숙, 김태희, 김윤규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두 번째, 해당화 CONTINUANT _ 네 부모를 공경하라

2006년 트러스트 10주년 기념공연에 초연되었으며, 기간 트러스트의 축적된 창작력과 향후의 작품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대극장 초연 이후 소극장규모의 작품으로 수정 안무되어 재공연 되었으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이미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와 만나 트러스트의 서정성이 한층 돋보인 작품으로 트러스트의 창작활동 10년의 전작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창작방향의 기점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최종천, 제니정자라, 이선영, 이미리, 박재영, 이지은, 주정민, 한새아, 김시은, 권예진, 김윤규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세 번째, 올리브나무 ALL LIVE _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2007년 창작 초연되어 2008년 관객의 앵콜요청과 지역축제의 초청으로 재공연되었다.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먼 땅 팔레스타인의 아픔으로부터 가까이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주제로 한 메시지 강한 작품으로 춤꾼들이 펼치는 자유를 향한 진실한 몸, 그리고 그 몸들의 하모니가 멀어진 이웃의 관계의 회복을 말한다. 이제까지 트러스트가 가져온 끊임없는 춤 창작의 열정과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작품 <올리브나무>는 2006년 기획의 단계에서 실제 연습까지 1년여의 진통을 통해 낳은 작품으로 출연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표현 그리고 그 몸의 유희가 관객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무용수들이 뿜어내는 움직임과 호흡이 무대에 가득 차오르는 그 순간 관객과 무용수는 그 진실된 몸짓의 유희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더 큰 하나가 된다.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이선영, 최진한, 박재영, 김정현, 김재빈, 주정민, 김효신, 송명규, 권예진, 신민, 김윤규, Javier Murugaren